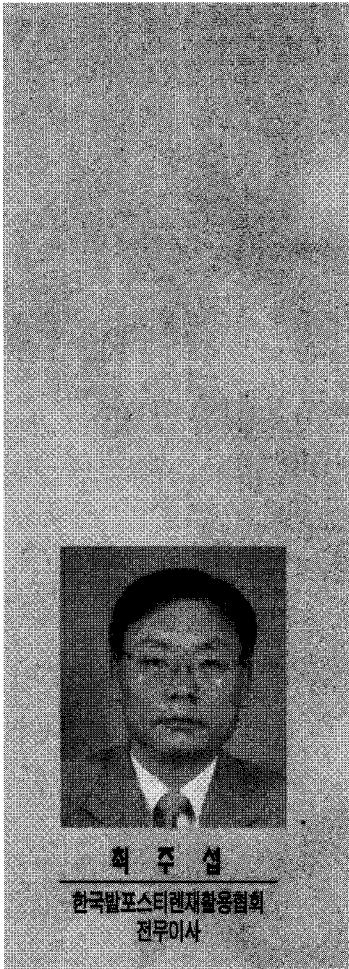




폐자원 재순환형 사회 구축 시급

Recycle of Waste Matters



황 주 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대량 폐기된 쓰레기 처리는 도시행정의 난제이다. 디지털시대에 돌입하면서 수년간 2천만대 이상의 구형 텔레비전이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폐품으로 버려질 것이다.

부부 직장인과 독신자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편 식품과 소형 포장 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포장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이나 건전지는 사용 후 교체할 때가 되면 어떻게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곤란스럽다. 이들 쓰레기들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소각처리 방법도 있으나 시설도 부족하고 2차 오염 문제도 따른다. 대안은 폐 자원의 재활용 방법이다.

그간의 폐자원 재활용은 대부분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와 민간수집상의 분리수집, 재활용업체의 재자원화 활동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사적 수익성의 유무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민간 참여는 부침이 심했다. 생산자에게는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을 부과시켰으나 자발적인 재활용이나 발생 억제에 성과는 미흡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에 전자제품과 형광등 생산자가 폐기된 제품의 회수, 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와 기업 간 협약

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는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가정 품목과 폐형광등에 대하여 회수, 처리비용 중 회수 비용만을 부담하며, 지자체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운반하고, 생산자는 이를 재활용 시설까지 운반하여 재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간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활용시스템을 준비했을 것이라 믿어 이의 성공적인 집행을 기대해본다.

한편 정부는 2002년부터 포장폐기물과 폐건전지 등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겠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대상 제품의 내구연수, 폐기 빈도, 분리배출방법, 회수운반의 난이도, 재활용설비의 유무,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등 외부 여건이 다르므로 해당 제품과 폐기물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제일 중용한 것은 최종산물인 재활용 원료나 제품의 적정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껏 재활용업체가 만들어 낸 원료나 제품의 수요가 없으면 재활용체제는 붕괴되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와 우유팩을 분리·회수하여 만든 재생화장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아 대부분의 재활용업체가 도산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재활용 원료나 제품의 자율적인 수요공급 시장의 확보가 어려우면 그 해결을 위한 시장가격의 개입, 수요처의 개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의 공공 비축 등 몇 가지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의 분리회수 및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등 역할 분담이 원활하도록 체크과 당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유료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의 재활용 대상 품목의 분리배출 증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대상품목의 분리회수작업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기존의 쓰레기수집업체에 위탁시키는 경우, 그 운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여 수집업체의 분리수거 대상품목의 회수 기피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품 생산자는 회수된 품목이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비용의 적정한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 원료가 동종 또는 유사 제품과 관련된 원료로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수요의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건이 형성되어도 재활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활용 제품의 질 향상,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생산원가의 절감 등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